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6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79호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3.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이학규장로편)
4. 젊게 살려면 차를 마셔라
7.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9. 군에서 날아온 소망의 편지

북한의 핵과 한반도 미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핵의 실체는 미래한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두 가지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과정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개입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글은 핵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반응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통일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원칙은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환경이 얼마나 냉철하며 이런 국제사회에서 국력과 힘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I. 초강대국의 등장과 후발국의 갈등

1980년대 중반이후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대립되어 있는 국제질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무능과 빈곤으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키와 글라스노스트로 함축되는 개혁 개방의 흐름이 소련은 물론이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화가 거세게 몰아치게 되었다.



사회주의권에 대한 소련의 종주권의 지위는 퇴색하게 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은 15개 독립국가연합(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으로 해체되었다.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던 국제질서는 깨지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새롭게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초강대국의 등장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에게는 물론이고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여간 블만스런 일이 아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초강대국 미국의 독주로 인한 후발국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오늘날 이런 국제사회의 양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상황부터가 그렇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유엔에서도 반대했던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발발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포로로 잡혀있는 후세인조차도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미국에 대해 온갖 막말을 쏟아놓기도 했다.

II. 9.11 사태와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등장은 중동의 이슬람 테러단체들에게 향후 그들의 목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었다. 중동 내 권력투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권력을 손아귀에 넣지 못한다고 믿는 원리주의자들은 반미감정을 자극해 미국과의 지하드(聖戰)를 치르며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대항할 유일한 세력이었던 소련의 해체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이때부터 미국을 향한 테러의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의 쌍둥이 빌딩과 미국 안보의 핵심기관 국방부 펜타곤에 대한 테러사태였다.

9.11 사태로 부시행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기존 안보전략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신안보전략이며 새로 설립된 국토안보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의 총책을 맡게 되었다. 국토안보부는 각 부서에서 흡수한 17만명의 인력과 첫해 37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국경안전국, 정보분석국, 인프라보호국, 생화학무기관리국, 비밀경호국과 연방재난긴급관리청 등 5국 1청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전쟁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하고 있다. 기존의 안보전략 하에서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무력충돌이고 미국은 타국이 공격을 해올 경우를 대비한 방어적 차원의 전쟁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안보전략에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은 그것이 국가건 테러단체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9.11 사태로 단기간 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2면에 계속 ▶

이달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강원도를 위한 기도

2014년 동계올림픽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어지되 이단의 역사가 짐범하지 못하는 올림픽이 되게 하소서

· 춘천을 위하여

①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며 깨끗하고 맑은 도시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② 시장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③ 모든 학교들이 건강하고 활기넘치며 복음을 통해 변화되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민족이 신음하던 전쟁의 상처가 있는 6월,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순국선열들의 덕을 기리며 이 시대 바른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되게 하소서
②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소서

· 교회를 위해

① 도시에 심으신 350개의 주님의 복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지역복음화의 성지화될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하소서
② 신교대회를 기도하며 기획하시고 준비하는 각 부서들마다 지혜를 주시어 기획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③ 아가파이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은혜 속에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새 성전 짓고 새롭게 도약하는

안 디 옥 교 회

(구 남춘천교회)

■ 연 면 적 : 3,300평
■ 단 면 적 : 600평
■ 층 수 : 지하3, 지상6
■ 본당좌석 : 2,000(최대5,000)



담임 유진형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안디옥교회
석사동 현진에버빌@ 1 · 2차 사이 4거리 ☎ 244-8881~7

특 집

북한의 핵과 한반도 미래



1면에 이어 ▶

박상봉 [방송인, 통일컬럼니스트, 서울장신대 외래교수 (통일, 북한학)]

III. 국제사회의 핵 공포

9.11 테러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핵, 생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핵물질의 암거래가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핵무기가 자칫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었다. 9.11 사태가 보여주듯이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이용해 테러를 감행할 경우 한 국가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런 공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동을 중심으로 한 테러단체들의 주 공격목표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핵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말해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유럽인이 느끼는 핵 공포로 지난 1986년 4월 소연방에서 득립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북방으로 130km에 위치한 체르노빌에서 폭파된 원전사고 때의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어 광범위한 주변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방사능물질은 수세기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유럽인들의 두려움은 매우 컸다. 유럽인들은 당시 풍향을 조사해 당시 덴마크 지역이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가장 적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덴마크 산 우유만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오염된 초목을 뜯어 먹은 젖소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덴마크 우유회사들은 서둘러 독일 등 유럽 여러 지역에 지점을 설치해야 했고 뜻하지 않은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인의 핵공포도 유럽인들 못지않다. 나가사끼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고 그 위력을 실감했던 미국인은 핵의 가공할 위력을 익히 알고 있다. 이런 미국인의 핵 공포는 90년대 초반 제작된 영화 「Peacemaker」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영화는 91년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한 군장성에 의해 핵무기가 밀거래되는 과정중 미국의 CIA가 개입해 핵의 증동 테러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련과 증동 극경에서 밀수출 차량을 발견했지만 극적인 실수로 한 개의 핵탄두가 유고슬르비아 출신의 한 교수의 손에 드러가게 되었다. 소박하게 살았던 교수는 유고 연방 내전 때 미군이 투하한 폭탄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게 되었고 이때부터 미국에 대한 증오심에 불탔다. 복수를 해야 한다는 집념에 그는 CIA의 감시를 벗어난 핵탄두 한개를 획득하게 되고 이 핵폭탄을 배낭에 메고 뉴욕에 도착 폭발시키기 직전 미 CIA에 의해 검거된다는 스토리다.

세계경찰임을 자임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간 전쟁, 시민전쟁, 내란 등에 개입해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만세력을 양산해 온 미국이 이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것이다.

IV. 북핵을 둘러싼 갈등과 한반도의 미래

북한 핵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세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이라 불리는 외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핵을 메개로 한 데미협박은 자충수와도 같아 보인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김정일과 같은 불량지도자의 수중에 있는 핵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빈곤한 경제를 무기밀거래, 마약판매, 위조달러 제조 등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지탱해 온 김정일이 핵을 증동의 테러단체에게 넘길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이것이 미국만의 인식이 아님은 여러 채널에서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작년과 올해 초 독일의 최대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 Der Spiegel」지의 커버스토리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암거래 그리고 김정일의 실체에 대해 장문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이 미사일 기술과 핵기술을 거래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일은 헤네스 코냑을 먹으며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금발의 미녀와 벗이는 유희를 통해 김정일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김정일의 심기가 아무리 불편해도 북한이 오늘날 핵정의 전초기지라는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김정일의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핵을 체제유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라크 전쟁 후 확산되고 있는 전세계 반미감정을 이용해 부시와 일대일로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남한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이런 가운데 작전계획 5029(북한 붕괴를 가정한 한미 군사작전계획)가 노무현 정부의 유출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고, 부시 정부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북한을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개될 한반도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염려스럽다.

첫째, 북한의 레드라인 침범과 미국의 선제공격이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소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증동의 테러단체에게 핵무기를 밀수출하는 것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핵실험은 증동으로의 밀수출보다는 미국이 인내할 여지가 많을 수 있다. 그것은 핵이 북한 내 있는 한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며 이 경우는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미국은 북한의 핵을 무력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미 · 증간 거래이다. 이 시나리오는 남한내 반미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미데모가 일어나고 정부는 민족공조라는 이름 하에 미국을 배제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 핵만 제거하면 된다는 자신의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중국과의 거래를 구상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지하고 향후 북한 지배를 용인하는 조건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핵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시나리오다. 결국 이것은 김정일의 들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반도가 평화정착이라는 명분 하에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번째 시나리오인 북핵을 메개로 한 미 증간 거래는 분단을 고착화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동북아에서 가장 약한 약소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가장 경계해야할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미국에게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고구려사가 중국의 변방민족의 역사로 둔갑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시기에 초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유언으로 남겼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기를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는 힘을 기를 때까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교훈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개천절날 아침 : 북한 핵개발에 대한 UN안보리에 회부되면 개천절날이 가장 좋은 우방국가 미국의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김춘배 이희영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집을 사랑해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문의처 254-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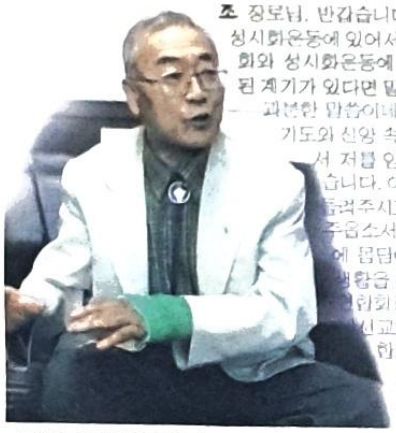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05 사랑의 집짓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주위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땀방울을 흘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일시 : 5월 1일 ~ 9월 30일
◆ 모집장소 : 춘천시 신북읍 4리 162-1번지(상천초교 뒤)
◆ 대 상 : 각 교회, 단체,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만 16세 이상)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문 의 : 춘천시지회 254-0009
◆ 신청방법 : 자원봉사자는 행사 7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기 타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셨던 석사감리교회 이학규 장로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지역복음화와 성시화운동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말씀이네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한 후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이 아들이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44년 교직에 몸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교직생활을 춘천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청장년연합회장, 성시교회연합회장, 평신도연합회장, 장로회연합회장 등 과분하게 섬기게 해 주셔서 춘천지역 교회와 목사님들과의 친분을 쌓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연합운동과 지역복음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1년도 제가 도교육청 교육감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조남진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 모이게 된 「평신도 성경구락부」에 들어가서 섬기며 신앙에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1972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CCC선교대회를 통해 말씀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신도성경구락부가 중심이 되어 성시화운동을 펴나갔으며 이 운동을 위한 큰 집회를 전국에서 권능받은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실내체육관에서 수차례 열게 되었습니다.

조: 성시화운동이 태동되던 초창기부터 참여하셨군요. 그 당시 성시화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 때는 대단했어요. 맨 처음 성시화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당시 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님이셨던 김연호 목사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구심점이 되어 주셨고 70년대 후반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성시화운동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평신도 성경구락부가 성시운동 중심체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데요, 그중에 변충구 목사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수사관학교장으로 계시는데, 그 당시 총신대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원주에서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춘천을 오가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새생명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봉성 목사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뜨겁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성시화운동에 열의를 가지고 헌신하다가 보니까, 섬기던 모든 집회가 다 성시화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시화운동 초창기부터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해 오다가 1995년 전용태, 양인평 장로님이 중심된 기관장 기도모임을 모이면서 이 기도모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발전적으로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정: 장로님, 성시화운동을 섬겨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대행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춘천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안해본 것이 없습니다. 시장바닥기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등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글짓기나 그림그리기행사는 다른 곳에서도 다 잘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구상하다가 십자가 행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에 웬 십자가 행진이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계셨지만,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자는 동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했습니다. 저의 바람은 십자가 행진을 지속적으로 발전, 실행하여 춘천에 기독교 문화가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 성시화운동을 섬기며, 연합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겠지요?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협력을 약속해 주시면서 어떤 때에는 안수축복기도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에는 말씀을 드리고 강대상 앞에 포스터를 놓고 광고와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써놓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추억합니다. 가끔 협조가 잘 안될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가니까 거절당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따름입니다.

조: 저도 연합활동을 섬기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을 여러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목사님들, 특히 조남진 장로님께서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제 목사님, 저의 사랑하는 아우 이용규 장로는 의료업무로 바쁜 때에도 항상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과 섬김과 협력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체험하셨던 은혜의 간증들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때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교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깨달음이 있은 후부터는 교직을 전도의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퇴임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춘천 오안초등학교 교장으로 사부했을 때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춘천군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서 남궁억 선생님이 계십니다. 남궁억 선생님께서 지은 찬송가중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며 외우게 했습니다. 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교회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억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애국정신을 본받아야 할 훌륭한 인물이신데, 그분을 본받으려면 그분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기독교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남궁억 선생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의 현장은 전도의 장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학교와 같이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옥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실을 상담실로 기독실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1972년부터 한국교육자선교회 춘천지회에서 총무로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학원선교가 성시화운동인 줄 믿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때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체육관집회를, 어떤 때는 초·중등 교장과 교사들을 위한 선교강좌를 지역별로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도 해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그 지역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성경학교 같은 것 말입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전도협회 임원들을 전원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라는 주제로 특별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한 교육자선교회 회원들이 춘천에서 모였었는데,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부족한 저를 원로회 초대회장으로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교육선교를 위하여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선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장로님의 지난 세월들이 제 눈에도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듯 합니다. 석사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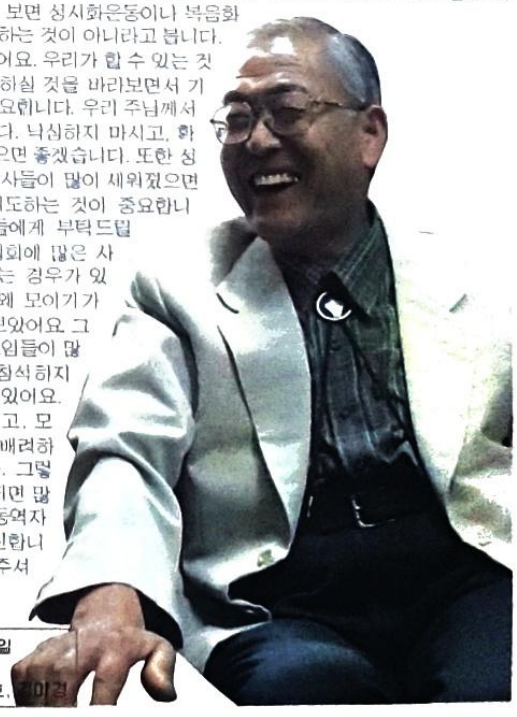
제가 석사교회에 1961년에 왔으니까 꼭 4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본토박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본토박이로 알고 인정해 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는 석사동 개발위원장을 맡겨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선교를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 계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석사교회가 지역주민들에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퇴직하신 후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퇴직하자마자 님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원주민과 교포들을 위해 일곱 차례 간증을 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으며, 실업인선교회를 통하여 일본 땅에 가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협회, 국가조찬기도회, 사랑의 집짓기운동 등 적당하게 활동할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는 여름에는 아프리카 선교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장로님, 끝으로 남은 여생동안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신도로서 전도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를 보면 감사할 것 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현 임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로 후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성시화운동이나 복음화운동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화신을 기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시화를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합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왜 모이기가 어렵나?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나가고 싶어도 모임들이 많아 시간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 낙심하지 말고,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 : 2005년 5월 25일
진행 : 조영춘
글정리 및 사진 : 정재호, 박미경

춘천성시화와 CEO 모임을 위해

복음화는 한 개인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성시화는 그런 성도들이 그 도시와 그 지역에 복음생명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어둠을 물아내고 불의와 불법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운동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경제계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마음자세와 정신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 한다. 실상 세상의 경제구조는 복을 받을만한 그릇이 못 된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적인 경쟁 속에서의 메섭고 비정한 현실이 있다.
이 경제적 환경 속엔 윤리나 질서보다 탐욕이 앞서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성공을 지향해야 하는 기업의 CEO들은 그 속에서 한없는 좌절감과 두려움에 종이 되어 끌려 다니게 된다. 끝없는 긴장감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스트레스의 희생자가 되고, 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과 탈선의 속임수와 고통들이 죄책감으로 남아 오히려 신앙적인 고민과 부담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큰 영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경제구조를 깨뜨리고 변화를 주도하여야 할 사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믿음은 새로운 경제적 개념의 구조를 가지게 하는 권능이 있다. 믿음으로 경제가 거듭나면 사회의 가난을 담는 측복의 그릇이 되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 사회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기업들이 이 땅에 곳곳마다 우뚝 우뚝 설 때 춘천의 성시화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며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사업전략에서 벗어나 윈윈이 되어 서로 살며 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서로를 부요하게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 최선의 값진 것을 생산하여 만든 제품에 자신의 명예를 걸줄 알고, 이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기업들마다 이루어지되 그 안의 종업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며 또한 지역뿐만이 아닌 업빙과 세계를 향해 믿음의 나래를 활짝 펴는 기업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하는 오너 즉 CEO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믿음의 주의 종으로서 춘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품고 미래를 위한 다리를 놓으며 리더십을 키워 선교적 마인드로 업방을 복되게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은 춘천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춘천에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말씀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성시화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 지면에 믿음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분들을 두 손 들어 큰 소리로 부르고 싶다.[편집부]

젊게 살려면 차를 마셔라.

"맑은 바람을 타고 티끌 세상을 벗어나고자"



정상문 목사 (동원감리교회)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어진 몸을 가능한 한 손상 없이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현대 의학의 목표가 점점 '예방'으로 옮겨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의치라도 날 때 타고난 치아를 못 따라가듯이 인체의 항상성 유지 능력 역시 어떤 슈퍼컴퓨터도 못 따라갈 만큼 정교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인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이 최고의 건강 비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항산화제는 인간이라면, 아니 산소를 호흡하는 생명체라면 당연히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인간은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로 섭취한 음식을 산화시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유독 물질이 생성된다. 이를 활성산소, 프리래디컬, 또는 유해산소라고 한다. 이 유해산소는 전자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된 세포에 집근해 전자를 빼앗거나 자신의 전자를 건네주는 성질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를 산화, 손상시키게 된다.

유해산소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다양하다. 인체의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어과정이나, 각종 호르몬을 만들 때나 센땡 유지에 필요한 모든 대사 반응에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유해산소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복병인 셈이다. 한 과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해산소는 세포를 1분에 약 1만 번 공격한다고 한다. 하루를 단위로 계산한다면 1,440만 번꼴로 시달리는 것이다. 이때 유해산소를 처리하는 장치가 원활한 사람은 해를 적게 입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몸속에 해로운 물질이 쌓이게 된다. 신체에 활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며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이 첫 번째 신호. 결국 유해산소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노화되며 신경전달물질에 장애가 생겨 치매가 오는 등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항산화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방어벽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면 유해산소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흡연 역시 유해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해야 할 악습 중 하나.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소화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산화제의 섭취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해야 할 의식적인 노력에 포함된다.
항산화제는 유해산소로 인해 우리 몸이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SOD,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등의 효소와 요산, 빌리루빈 등과 같이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제 성분으로는 이른바 에이스(ACES)로 불리는 비타민 A, C, E군과 셀레늄을 비롯해 크롬, 마그네슘, 조효소 Q10 등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항산화제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성분들은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으로는 쉽게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상시 섭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브로콜리, 피망, 토마토, 아보카도 등은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식탁에 빈번히 오르는 재료는 아니다. 일상에서 즐겨 먹는 것이 어렵다면 알약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다. 황색 계열의 아채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아맹증을 예방하고 뼈, 피부, 모발,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짙은 녹색 채소, 땅콩류, 도정하지 않은 곡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 E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등맥경화 등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감귤이나 키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비타민 항산화제이다. 하지만 비타민 A는 권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남은 양이 간에 해를 끼치므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정상 혈당을 유지시켜주고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크롬(Chrome)은 육류, 브로콜리, 후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골다공증과 당뇨를 예방하는 마그네슘은 통곡류, 콩류, 씨앗류에, 잇몸 질환에 효과가 있는 조효소 Q10은 달걀, 고등어, 정어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요즘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셀레늄, 리코펜, 카테킨 세 가지이다. 셀레늄은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해서 유해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또한 인체의 적혈구 세포와 세포막을 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주로 생선, 육류, 달걀, 우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땅콩, 아몬드, 호두, 잣 등의 견과류에도 풍부하다.
최근 <타임>지의 커버를 장식하는 등 가장 주목받고 있는 리코펜은 잘 익은 붉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다. 카테킨처럼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노화와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으며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카테킨은 녹차에 들어 있는 유효 성분으로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나 산화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를 없애주어 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동맹경화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어준다. 단 이 카테킨 효과를 기대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우·리·가·족·주·치·의
고석연 가정의학과 033-254-0121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시간
검사항목
예방접종, X-ray검사, 고지혈증 검사, 심전도 검사, 노문석검사, 당뇨·혈당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폐기능 검사, 물리치료
춘천시 후평동 한신아파트 건너편

산채골.com 별관


• 산채보리밥 (화천에서 채취한)
• 훈제삼겹살 전문
장명숙 집사 (나눔교회)
후평동 대우아파트 앞
Tel. 241-813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람뿡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달수, 봉하심 선교사 가족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2억 2천 260만 명이 사는 나라로 인구의 약 88%가 이슬람교 신자이며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이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인 수마트라는 누운 고구마 모양의 섬으로, 최북단의 아체 주로부터 최남단의 람뿡 주까지 모두 9개의 주(州)로 이루어져 있다. 그 9개의 주 중에서 최남단에 있는 주(州) 람뿡(Lampung)에서 강원도 출신의 최달수, 봉하심 선교사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다.



강릉이 고향인 최달수 선교사는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제1회)하고, 대학시절 춘천CCC 총순장과 은혁음춘천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으로 캠퍼스복음화를 위해 힘하였다. 이후 한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았으며 한국선교사훈련원(GMTC)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2000년 6월 예장(합신) 세계선교회(PMS)의 총회파송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아내인 봉하심 선교사는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1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함께 선교사로 나갔다. 자녀로는 세 아들 요한(13세), 요셉(11세), 요엘(8세)이 있다.



이들의 사역지인 람뿡(Lampung)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마트라로 들어가는 대문(大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크기이며, 총 인구는 약 700만 명. 인구의 약 44%가 15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며, 인구의 8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람뿡은 남위 5도상에 위치, 연중 더운 열대습윤기후이며, 연 평균기온은 24~34℃이다. 람뿡의 지명은 '남풍'(南風)에서 유래했으며, '남쪽 바람이 부는 땅'이란 뜻이다.

람뿡 주에는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다양한 종족이 혼재하며, 자와족이 다수이다. 특히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토착민인 람뿡족(族)은 5개의 작은 종족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륙지대와 해안지대에 살고 있으며, 메우 폐쇄적이며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종교는 정부 통계로 이슬람이 95.4%, 기독교가 2.2%, 불교가 0.74%이다. 람뿡 주는 가난한 주이며, 치안이 불안하여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며, 살인사건이 연간 약 100건이나 발생한다. 마약 확산으로 교도소 수감자의 50%가 마약 사범이며, 적발되는 대마초만 연간 11톤에 이른다.

람뿡 주(州)는 면적이 광활하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나 상주 선교사는 극소수이다. 최달수, 봉하심 선교사는 람뿡 도를 목표로 사역하는 장기선교사로서 이 선교지의 실제적인 필요와 자원들을 고려하고, 람뿡과 한국에서 조직한 람뿡아가페선교팀(LAMP)을 주축으로 미전도종족인 람뿡족 선교가 중심 사역이다. 람뿡복음화를 위해 복음전도와 지도자훈련, 교육, 의료, 사회봉사 등 이슬람권에서 필요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선교전략을 사용해 사역해 나가고 있다. 그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엠마오 성경학교(SAM EMAUS)를 통한 지도자훈련사역.

평신도 지도자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엠마오 성경학교의 전체적인 운영과 교수 사역에 힘쓰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엠마오 성경학교는 5년째인 2003년 8월 (제5기)부터 교육과정과 정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2개 과정(평신도지도자 훈련반, 주교교사 양성반)에 각각 30명씩, 모두 6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16명의 교수진이 가르치는 학교로 발전하였다.

엠마오 성경학교는 람뿡에서 유일한 초교파적인 야간성경학교로서, 람뿡 현지 교회들의 증직자들과 교사들,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심 있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과 봉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지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훈련교육기간은 1년 과정으로 16과목 정도의 성경과 조직신학, 실천신학을 공부한다. 졸업생들이 제자의 삶을 살며 람뿡 주 복음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광대한 람뿡 주의 형편을 고려하여 앞으로 몇 개의 주요 거점도시에 성경학교의 분교(分校)를 열 계획이다.

둘째, 미전도종족 람뿡족을 위한 교회개척 사역.

선교사역의 역량의 많은 부분을 쏟아 람뿡 주의 원주민인 200만 명의 람뿡족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척사역은 제2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한국교회의 많은 동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람뿡족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당이 건축되고, 자신들의 종족출신의 목회자가 자신들의 방언으로 설교하며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셋째, 현재와 미래를 위한 어린이 전도사역.

인도네시아 람뿡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인 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대한 전도와 영적부흥을 위해 초교파적인 주일학교 교사훈련, 어린이 전도, 어린이 연합부흥회 등을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최달수, 봉하심 선교사 [illegible]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슬림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선교사로서의 [illegible]인내와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다. [illegible]의 기도와 [illegible]다!!(sumsoo@hotmail.com / 글 편집부)



1 미전도종족 람뿡족 아동사역자들과 함께
2 최달수, 봉하심선교사 가족
3 성경학교에서 공부중인 평신도 지도자들

엠마오 성경학교 전경

"키토산 활수기 초특가 출시"
라파플러스
₩ 154,000
건강기능식품 대중화 선언!! 9,900원의 믿음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키토산 60 칼슘
1000정 33,000원 9,900원 9,900원 9,900원
라파플러스
● 아토피아그대로님이 살았는 물
● 우리몸의 약이는 약수입니다
● 정수를 위해 인체를 희생 하지 않으로로보도의 돈낭비 없음
● 전기를 기름지 않습니다
키토산 활수기 출시기념 무료증정Event
행사기간중 라파플러스 키토산, 글루코사민, 칼슘 1개월분과 키토산 비누, 키토산 치약을 증정해 드립니다.
033)257-1926 / 011-372-1926
조준임 권사
www.taphapluse.co.kr 한글도메인 : 라파플러스

성 시

성시화운동은 준비된 밭에 씨를 뿌리는 일.



"하나님은 놀랍게도 미리 좋은 씨앗과 옥토를 준비하셨다."

글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

며칠 전 인도 비하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춘천 출신의 이영길 선교사가 강촌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상황을 보고했다. 연약해 보이는 체구에 목소리까지 아주 작았지만 우리에게 들려준 그의 비하르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곳에 투입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곳의 토양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사역자가 씨를 뿌리면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 곧, 토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불모지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120년 전 백안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을 통해 입항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국과 한민족을 위해 아주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차곡차곡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온 것이다.



필자는 60년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는 그렇게도 가기 힘든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우리 역사와는 전혀 비교도 될 수 없는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지만 가난했던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발전된 문명과 그 사회를 들여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다. 금속활자, 고려청자 등을 내세우며 찬란했다는 5천년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십대 후반의 젊은 한국인이 느끼는 열등감을 만회해 보려고 했으나 자부심은 커녕 오히려 부끄러움만 더해갔다. 그 때 필자는 이런 결심을 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리라! 5천년 찬란한 우리 역사를 드러내 보이리라! 그 후 한국에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틈틈이 한국 역사를 탐구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 필자는 결코 다른 나라 어떤 역사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역사의 위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적 손길을 만날 수 있었다. 온사이섰던 윤성범 박사가 한국적 신학을 통해 밝혔던 씨(종자-복음)와 밭(토양-상황)의 문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 착착 준비되고 진행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고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 씩 하나 씩 내 앞에서 그 베일을 벗었다. 한국사가 성경 역사처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에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무릎을 이프도록 치기도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그 후 필자는 먼저 깨닫고 알게 된 바를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썼다.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다 이 짧은 지면을 통해 간단히 소개할 수 있음까마는 단 한번 남은 기회라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들아가 보자. 사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 왔다는 1885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한민족을 마지막 때에 선교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 준비해 오셨다.

얼두 사도 중 도마가 유일하게 동방으로 복음 전도의 길에 나섰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일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파다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이천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이다. 세례자 요한이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 것처럼 사도 도마는 동방, 아시아로 왔고 씨를 뿌리기에 앞서 밥고르기를 하고 옅매를 잘 맺기 위한 옥토를 준비한 것이다. 도마가 동방으로 와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은 많은 흔적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도마교라는 이름으로 인도에 남아있다. 인도 동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인이 아닌 소위 몽골계 아시아인, 엄밀하게 말해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스키타이 문명을 일으켰던 우리와 조상을 같이 하는 동이(東夷)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야(伽倻)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 역사 속의 한 나라였던 가야(伽倻)라는 나라가 인도에도 있었다는 말이다. 지면상 자세히 소개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언어에는 명사와 등사 부분에 아직도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어 버린 우리 역사의 유산 가운데 삼국유사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 아유타국 공녀가 이 땅으로 건너와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과 결혼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수로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이고 그 부인은 김해 허씨의 시조이다. 지금도 수로왕릉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인도 아유타 가야의 유적에도 그 무덤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남아있다. 그것은 물고기(익투스) 문양이다. 아유타 가야가 있던 인도 동북부는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고, 지금도 그곳은 인도에서 가장 넓게 복음화된 지역이다.

한 25년 전 쯤 고대 가야국이 있던 지역에서 도마의 화상이 그려진 바위(분처바위)가 발견되기도 했고, 발굴되는 가야의 고분에서 기독교 유물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신라에 흡병되기 전의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이들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인도의 아유타 가야 사람들과 도마였던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서쪽 유럽으로 그 시대의 복음 선교 방향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도 한 사람을 동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아시아를 복음 선교의 땅 끝으로 정하시고 때가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 곧 옥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준비된 토양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옥토이다. 왜인가? 마지막 시대의 모판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교회 성장은 비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신다. 춘천 성시화운동은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응답이다.

[※본 글은 기고자의 신학과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KTT 건국항공여행사
KUNKUK TRAVEL C.O.,LTD



KUNKUK.TRAVEL.CO.,LTD
김 진 표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월호광장에서 강대후문 방향)
tel 033-251-2292 fax 033-252-2292
h.p 011-9058-2290
e-mail jp1015@daum.net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닭도리탕 · 한방백숙
※ 대형주차시설 완비
※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광염교회(박인관 목사)편입니다.

광염교회는 1991년 10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맡씀을 좇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이다. 광염선교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건강하게 자라온 이 교회와 400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교육에 강한 교회

기자단이 광염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광염교회 박인관 목사는 잘 마련된 5층 서재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저녁에 있이질 '알파코스'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란다. '알파코스'는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복음이야기를 나누는 가볍고도 자연스런 친목모임.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계에 잘 알려져 있다. 광염교회는 설립초기부터 전도, 세가족의 훈련과 양육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였다. 전화설교와 방송설교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하였고, 알파코스와 함께 매주일 이루어지는 새신자교육, 벧엘성서교육, '성서의 맥' 공부, '큐티나눔' 등이 정착화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작년 한해 180여명이 새로 등록하였고, 세가족 정착률은 80%를 웃돈다고 한다. 한국교회 평균수치 20-30%를 기준으로 볼 때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목회로의 부르심

박목사는 모태신앙으로서 춘천중앙감리교회 출신이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동원감리교회의 개척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는 동원교회에서 자라게 된다. 박목사의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매우 빨랐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였고, 이후 한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21살 되던 해에 가평 인근의 교회에서 단독목회를 시작할 정도의 놀라운 열정이 있었다(신유리교회). 한달 5,000원의 사례비로 시작한 목회였지만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한다. 잠깐의 외도라면 군입대전의 3년간의 공무원 생활과 군 제대후의 2년간의 직장생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일반인들의 세계를 훨씬 잘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깊은 소명감으로 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춘천외곽의 송암교회에서 5년반을 섬기고 광염교회를 개척한 박목사. 이후 후평동 1단지 시대와 후평3동 현립빌딩 시대를 거쳐 지금의 애막골 시대를 열었다. 광염교회의 설립비전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던 중 하나님말씀, 선교와 구제, 치유, 갱신을 키워드로 사역하고 있다.


태국교회 건축봉헌


인도미션스쿨운영



특성화 은사그룹과 선교

광염교회는 자랑거리가 많다. 40여개의 특성화 은사그룹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8개의 부서 조직 외에 노방전도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큐티나눔 위원회, 새신자 성경공부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 실내환경위원회, 장례위원회, 방과후 아동지도위원회, 스포츠선교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역사자료위원회, 영상자료위원회 등 40여개의 은사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모두가 평신도 그룹으로서 주일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체적 365일 역동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광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 비하르주 선교와 중국선교 외에 태국, 필리핀, 카르키즈스탄 등의 해외 선교와 선교단체지원, 국내선교, 사회선교에 교회재정의 25%이상을 투자하여 선교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선교지에 2개의 교회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5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교우들도 이러한 박목사의 비전에 적극 동참하여 현재 80가정, 전교우의 40%가 선교후원에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춘천의 목회자중 독서광 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박목사가 그 광인(狂人?)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 중의 일부인 4,000여권을 교회 도서관('빛소금 작은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한국 사립문고 협의회의 임원일 뿐만 아니라 독서증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박목사가 독서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시절 송암장학회로부터 3년간의 장학금을 지급 받으면서부터. 그 장학금으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고, 공무원 생활 시절에는 2/3를 책값으로 사용했을 정도라고 회고한다. 박목사는 최근 한국교회 독서운동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아가피아 존 천스쿨'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목사는 자신의 신앙형성은 역시 독서로부터라고 자평한다. 어려서부터 신앙위인전기를 많이 읽었는데 주기철 목사, 이용도 목사, 선다싱 같은 이들의 위인전이 자신의 신앙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었을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천로역정을 읽으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주인공처럼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결한 성도의 길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꿈

2003년부터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 동내면 거두리의 임야 1500평을 매입하여 신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평소에 교회건축에는 뜻이 없었다는 박목사. 그러나 선교와 문화, 지역사회봉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박목사. 늘 불붙는 열정과 겸손함을 겸비한 박목사. 이런 박목사와 함께 하는 교우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운 생각이 든다.

[www.cclsok.kr 춘천시 효자동 728-8 ☎263-5007 /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영어회화 가격이 얼마냐?" / "단 한달만에 말이 틀린다" / "절대로 어렵지 않다. 왕심학 학력 학기만 해도 된다"

1. 개강일 6월7일(화) 오후 6시50분(시간엄수)
2. 기 간 6월7일(화)~7월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7시~10시 까지)
   1일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 48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인트로 단계 2기, 교재 "Interchange(Intro)"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 교회
5. 훈련생대상 남녀노소 상관없이 중학교 영어 책을 단순히 reading할 수 있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됩니다.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신학생 및 목회자 환영합니다. (☞영어학습에 대한 기본기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중고생자녀와 같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6. 훈련 등록 반드시 6월 6일(월)까지 반드시 등록신청 완료. 선착순 42명
   (TEL.264-0691 C.P011-386-6239, 016-236-0688)

*참 조: 훈련생 소감문이 춘천 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cccehc.com)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일촌공)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033)262-7923~4, 262-5694, 010-6368-7929

소개합니다

삼 우 장 학 회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설립목적

1996년 심상우 장로(춘천제일교회)가 설립한 삼우장학회는 '세 가지를 돕겠다'는 의미로 부모가 신체장애자이거나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학비를 보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사장 심상우 장로는 태어난 지 백일만에 부친이 작고하면서 가세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5남매를 기르면서 가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생활하였다. 중·고등학교 때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어머니가 학교로 날려 다니던 시절을 지내면서 나중에 커서 나와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게 돕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컸던 심상우 장로는 춘천고와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친구에게서 빌린돈 3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85년 심양전기를 창립하였으며, 이때부터 장학재단설립을 목적으로 적금을 부어 96년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삼우장학회를 설립하였다. 30년 전 소년시절, 스스로에 대한 굳은 의지와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장학기금

삼우장학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약 480여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2억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현재 춘천지역 11개 고교 학생 18명에게 각 80~1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심상우 장로는 장학기금을 1억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계획이며 춘천시 등면 만천리에 2천평 규모의 장애인 휴양소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의 비전

심장로는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돕봐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교회에 다니기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버스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장애인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여생의 소망입니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글 편집부/ 삼우장학회 033-254-4238]

영혼의 양식

복 받을 짓과 망할 짓 [시1 : 1-6]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은 평생 복 받는 백성, 곧 복민(福民)이 되는 길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농군학교 강의 중에 "여러분, 내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렵니다"라고 말하자 모두 큰 기대를 품고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복 있는 자란 누구인가요? 망할 짓 하지 말고 복 받을 짓 하면 됩니다. 망할 짓은 무엇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인가요? 부모가 기준인가요? 사회가 기준인가요? 성경은 복 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모든 생각은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리는 모두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을 짓, 망할 짓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는 악인의 꾀를 버리는 자요, 죄인의 길을 걷는 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새사람 되는 길, 그리스도를 닮는 성결한 삶은 모두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고 마르지 않는 비결은 말씀은 생명의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내 생각 속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 생명수가 내 말과 행동 속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말씀을 통해 곤비한 내 영혼이 천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도 물이 들어가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퇴비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복 받을 짓인지 망할 짓인지 그 차이는 말씀으로 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모두 말씀으로 사는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다 형통하리로다."





군에서 날아온 소망의 편지



3273부대 소망교회 이 진 천 목사

시간을 더할수록 군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확신을, 믿음이 없는 형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서 안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일들을 통하여 매주 마다 더해지는 구원받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마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한 숫자가 내가 20년의 사역을 하면서 전도한 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이곳에서는 매주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으며,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전 병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모두 전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도 정들었던 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기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처소에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병사들에 대하여 전역한 이후에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 스스로 교회를 찾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역시 주님께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어떤 병사들은 전역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 전 한 병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에 있다고 했다. 그 형제는 군대에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내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어두웠던 그의 표정은 이제 밝아졌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위한 기도 역시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한 형제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하여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이찌한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다짐을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군 생활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놓는 순간부터 그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가 주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한다. 이곳 소망교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는 분들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비교가 됩니다.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1.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2. 의로운 생활을 합니다.
3. 평화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4. 자기 절제와 통제가 있습니다.
5. 신앙이 방패가 됩니다.
6. 항상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7. 성경을 암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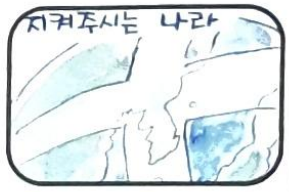
1. 무지로 인해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무지로 인해 의롭지 못합니다.
3.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4. 무분별하고 부주의합니다.
5.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성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에 의존합니다.



성시콤

〈김 춘 배〉









예 향

시련이 주는 선물 편집부 최성도

윌리엄 문(Willam Moon)은 대학생 시절 눈병이 발견하여 갑자기 맹인이 되고 말았다. 처음에 그는 괴로워하며 왜 이런 시련을 자신에게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불규하였다. 이렇게 기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주위에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자신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윌리엄 문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과 그들을 위한 점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점자 알파벳을 발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문명에서 해방되고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시련이 위대한 사명을 발견케 한 것이다.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베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포 / 토 / 에 / 세 / 이 /



유월이 오면...

유월이 오면 조용히 다가오는
피의 음성...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절규의 큰 함성들...

푸른 산과 강가에서, 정겨운 마을, 단란한 가정
이 행복과 안정의 뿌리에 담겨있는
님들의 소중한 그날의 눈물과 아픔들...

스쳐간 그 자리엔
또 다른 사람들의 물결이 이어지고,
그날의 절규를 또 다른 삶들이 채워가며 부산하지만,
그때 그 잿빛 같은 현실을 핏값으로 지불한
보이지 않는 밀알된 이들의 피어린 소망

부끄럽게 살아선 안된다.
결코 육심에 묶여 민족을 잊어선 안된다.
이 땅은 반드시 그 아픔의 영광을 꽃피워야 할
복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찢기고 잘리며 떨어져나가고 쓰러지던
풀린 눈망울 감을 수 없던 그 눈가에 머물던
한 서린 희망들...
가슴에 새길 장엄한 오페라의 절정!

시. 한 상 준 집사(서울교회)

삶속의 미담



황병호 교수
(강원대 원산광학과/춘천제일교회 장로)

황교수는 교회에서는 선교위원장으로 교회의 몽골, 일본 단기선교를 수차례 다니왔으며, 대학에서는 IVF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평소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황교수는 체계적으로 선교학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사당동)에서 2년 6개월 동안 전문인선교를 전공했으며(54학점), 이어서 루이지아나 침례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분교에서 3년간 60학점을 이수하고 "평신도 단기선교 훈련 정책" 분야의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지난 5월 13일 미국 루이지아나주 쉬리브포트 소재 루이지아나 침례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신학박사(Ph.D in Missiology)를 수여 받게 되었다.

한편 황교수는 시내 대신신학교(춘천)에서 선교학과 기독교 리더십을 강의하기도 하였으며,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춘천장로연합회장, 강원 IVF와 중앙 IVF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한국교육자선교회, 한국선교사 자녀교육 계발원 전문위원, 춘천기드온협회 회원, 춘천 고경협의회 회원, 춘천제일교회 기획실장, 수석장로로 섬기고 있다.

행사안내

▣ 제12회 춘천어린이 연합찬양축제 개최 ▣

춘천지역 각 교회의 어린이성가대 및 찬양대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어린이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일 시 :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
2. 장 소 : 석사감리교회
3.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4. 주 관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5. 프로그램 내용
   제1부 - 개회식
   제2부 - 찬양축제
   제3부 - 연합성가
6. 문 의 : 254-7244

※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사랑에 빚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책 소 개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글. 춘천평안교회 고재만 목사

존 맥스웰 著, 강준민 옮김, 두란노, 1997.

저자인 존 맥스웰은 목사이기도 하면서 리더십의 전문기로 많은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십여 년 간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쌓은 비법을 망라한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책에 언급된 리더십은 많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이기에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이다.

흔히 리더십과 경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경영이란 조직체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과정이다. 반면,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은 높은 지위에 있는 소수의 몇 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리더십의 능력을 키워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은 후천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 우리는 리더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맥스웰 목사는 그의 서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당신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라고 말해서,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다. 각 장마다 리더십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원리들을 상세하게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 - 우선순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 통전성, 리더십의 최후의 시금석 -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리더십을 인정받는 비결 - 문제 해결, 리더십의 특별한 장점 - 태도, 가장 귀중한 자산의 계발 - 사람들, 리더십의 필수 자질 - 비전, 지도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 자기 훈련, 지도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 후진 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실제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리더십 훈련을 위해 새롭게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이 책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큰 소득이다.

그의 서문에 밝힌 글을 소개하면서 마친다. "모든 세대에 걸쳐, 리더십이 그 시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전면에 나와야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잠재력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의 때를 안다.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당신의 때를 준비하라!"

진정한 웰빙 생활,
하고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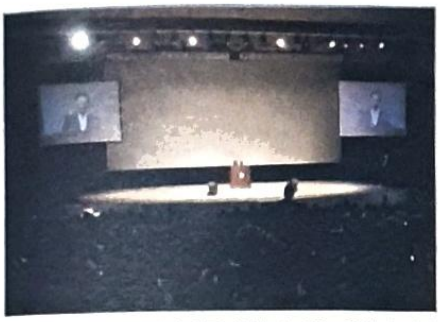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습관!
이롬 황성주 생식
◆ 자연 그대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산물로 만들어 집니다!
◆ 벤처기업을 인증받은 이롬 생명과학연구원이 탄생시켰습니다!
◆ 새로운 포장으로 더 신선하고 편리하게 만나세요!
033)257-1926 / 011-372-1926
조 준 임 과사

새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 기독교서점
시청 맞은 편
☎033) 257-5725 019-319-6837

♡ 음악과 강연의 밤



춘천지역 대학생 복음화를 위한 제10회 "음악과 강연의 밤"행사가 5월 12일(목) 오후 6시 20분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기독교선교회와 기독직장선교회 그리고 학원선교단체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장 이명박장로가 '청년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CCM가수 김명식씨의 찬양 라이브콘서트가 이어졌다.

♡ MPS 제 87기 수료식



베드로선교센터 추수홀에서는 5월 28일(토) 오후 3시 MPS(선교세계관학교) 제 87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김종호목사 효자감리교회)는 약 50여명의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고, 수료생들의 몸찬양과 힙합워십댄스, 특별 찬양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CBS 춘천방송 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CBS 춘천방송 여성합창단(단장:백명임)은 지난 5월 28일(토)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CBS 춘천방송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창단연주회를 열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은 이상조씨의 지휘와 홍승희씨의 반주로 '주기도문'과 '축제의 할렐루아', '하나님의 나팔소리'등 성가곡과 '산'과 '그리움', '엄마야, 누나야' 등 친숙한 우리 가곡도 다채롭게 선보였다.

♡ CBS 춘천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연합성회





BS춘천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연합성회가 5월 1일(일) 오후 2시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춘천지역 사회와 교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진규 CBS춘천방송본부장은 "그동안 춘천지역교회와 성도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10년의 비전을 내다보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좀 더 성숙한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정식 CBS사장의 기념사,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류종수 춘천시장의 축사, 유진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CBS춘천방송 운영후원회장 김주환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2부 예배에서는 발전위원장 박상호목사의 기도, 운영위원 정상교목사의 헌금기도, CBS기독교방송 이사 권오서목사가 'CBS춘천방송 발전과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특별기도를, 운영후원부회장 김창수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특별히 이날 설교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21세기 선교전략과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이희숙집사의 축가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김순일권사의 국악찬양, 동부교회 엘홉남성중창단과 CBS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 강원기독교연합회장 이취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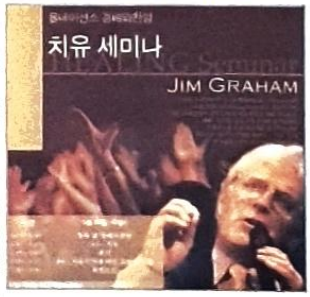
지난 5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춘천동부교회에서는 강원기독교연합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4대회장이었던 한재덕목사(강릉교회)가 이임하고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춘천동부교회 임신영목사가 취임하였다. 강원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오승룡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장로연합회 부회장 박한빙장로의 기도, 강원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창수목사가 '지도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교를, 윤철중목사가 축도를 하였다. 또한 이날 김진선 도지사가 한재덕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축사를 하였다.
1986년부터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임신영목사는 춘천교역자연합회장, 춘천장로교협의회장, 한국아시아 선교봉사회장 한국교회협의회 중앙위원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경찰청 경목, 강원도노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직장선교연합회 제5회 열린찬양축제



지난 5월 28일(토) 오후 7시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는 직장선교연합회(회장:최형선장로)주최로 "제5회 열린찬양축제 및 연합회장 이.취임예배"가 열렸다. 이날 전임회장이었던 김형수장로(석사교회)가 이임하고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형선장로(춘천동부교회)가 취임하였다. 예배 후에 열린 열린찬양축제는 춘천동부장로교회 미리암 여성중창단을 비롯한 8개 팀이 참가해 그 기량을 선보였다.

♡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치유세미나



지난 5월 29일(주일) 오후 3시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는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치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치유목회의 권위자인 짐 그래함(JIM GRAHAM)목사와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날 치유사역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치유세미나와 경배와 찬양 특별집회를 가졌다.

♡ 제19회 2005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대회



제19회 2005 침례교 강원도 목회자대회가 오는 5월 30일(월)~ 31일(화) 이틀간 춘천두산리조트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침례교 강원도목회자협의회(회장 황인징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춘천지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침례교 강원지역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족구, 피구, 배구, 윷놀이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뭉치고 침례교단내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참복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백조비니루 강원총판



벽지 및 바닥제
전문시공업체
대표 손 종 금
인성병원건너 공익상회
연락처 전화 033-254-3428 / 033-257-3428
야간 033-254-6474 / 핸드폰 011-366-3428

사 설



신앙인에게도 조국은 있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한다. 이 6월만이라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국가관에 대하여 한번 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내촌은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에게 조국은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아랍청년과 이스라엘 청년이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과 라디오에서 중동전쟁의 소식이 전해졌다. 깁자기 두 청년이 사라졌다.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알아보니 아랍청년은 징집될 것을 피하여 잠적했고, 이스라엘 청년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난 자기 나라로 귀국했다.

지난 5월 24일 7시 35분 MBC, 'TV의 현장 속으로'에서는 '대한민국의 남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방성만 상병의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그 청년은 내가 시무하는 교회의 청년이다. 그의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으로 스페인에 있다. 젖먹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스페인서 자랐고 대학과 군대 생활, 그것도 아버지가 해병출신이어서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와 합머니 댁에 거하면서 신앙생활도 착실히 하고 있다. 그의 동생 방진만은 백일박이 어린애기로 스페인에 갔었는데, 지금은 대학과 군대를 위해 할머니 댁에 와 있으며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리고 곧 이달 6월 7일 해병으로 입대를 한다. 근간 모 고위층 사람의 아들이 이중국적 중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한다. 애국에 족이 무엇일까?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던진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TV에서 애국관이 없는 철부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린애기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라나 우리말도 서투른 그 청년들, 그러나 대학생활과 병역의무를 위해 조국에 들어와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중적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이 충성해야할 대상은 첫째 하나님나라요, 그 다음은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할 것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국가에 충성치 못하였을 때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었음을 기억하자.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악몽을 걱지 않기를 소원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자!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에게 조국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알려드려요

◆예수사랑운동

1) 멱동 모임
일시: 6월 11일(토) 오후 6:30
장소: 예광침례교회

2) '흑리&머즈 수련회'
일시: 6월 마지막주

3) '예수캠프'
• 1차 예수캠프: 8월 1~3일 • 2차 예수캠프: 8월 4~6일
• 장소: 화천반석수양관 • 주제: 예수님의 열두제자
• 강사진: 1차 한군목사, 백종윤목사, 2차 이장호목사, 이원호목사
•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예배인도자 학교'
일시: 6월 3일 21:00 ~ 4일 09:00
장소: CCC 아카데미 하우스

2) '전도집회'
일시: 6월 3일(금) 오후 7시 장소: CCC아카데미 하우스
강사: 심영기 박사

3)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기간: 6월 27일(월) ~ 7월 1일(금)
장소: 횡성 성우리조트
문의: 254-5776 양성훈 간사

4) '전략회의'
일시: 6월 5일(일) ~ 7일(화) 장소: 속초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선교대회 'OPEN 2005'
일시: 8월 16일(화)~19일(금)
대상: 선교 관심자, 교역자 및 일반
인원: 2000명 선착순 마감
문의: 02-3142-1061~2, 3142-1205~6

3) 2005 Missian Conference
주제: Wonderful Cross
일시: 6월 28일(화)~7월 2일(토) 4박 5일
대상: 대학생, 청년
장소: 천안 나사렛대학교
회비: 신청비 2만원, 1차 6월 4일까지 9만5천원 2차: 6월 18일까지 10만원 당일: 6월 28일 11만원
연락처: 033-241-5599/ 011-234-8517

.ywamkorea.cyworld.com

4) 2005 여름 전국 Youth Camp
주제: NEW
일시: 7월 25일(월)~28일(목)/ 3박 4일
장소: 백석대학, 천안대학교
인원: 선착순 20000명(학생, 자원봉사자 포함)
참가대상: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가비: 1차 ~55,000원(6월 20일까지)
2차 ~60,000원(7월 18일까지)
연락처: 042-637-0725, www.ymkorea.net

◆JDM

1) 'CCM, CCD 경연대회'
일시 : 6월 6일(월)
대상 : 청소년(중 · 고등부)
장소 : 세계제자훈련원(WDTI)

2) '제자행전'
일시 : 6월 27일(월) ~ 7월 2일(토)

3) 세계선교대회(MISSION '05)
일시 : 8월 1일(월) ~ 6일(토) 장소 : 강원대학교

◆IVF

1) '여름단기선교파송예배'
일시: 6월 4일(토) 춘천회관
강사: 김병선 선교사

2) '여름훈련 ERC 조장 훈련'
일시: 6월 22일(수) ~ 25일(토)
장소: 춘천회관

3) '춘천IVF 여름수련회(연차별훈련)'
일시: 6월 27일(월) ~ 7월 6일(수)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4) '춘천IVF 단기선교(비전트립)'
일시: 7월 18일(월) ~ 8월 6일(토)
장소: 중앙아시아(5국 등 5개국)

◆어린이 전도협회

1)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일시: 6월 20일(월) ~ 21일(화) 오후 6시30분~9시30분
장소: 석사감리교회
회비: 1인당 20,000원
문의: 253-1443, 242-8291, 018-292-8839

◆CBS춘천방송 개국 10주년 기념음악회

' 소리엘 라이브 콘서트'
일시: 6월 4일(토) 오후 7시
장소: 한림대 일송아트홀

◆제23회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강원감리교단)
일시: 6월 6일(월) 오전 6시30분 출발
장소: 태백시 공설운동장

◆2005 춘천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
일시: 6월 12일(주일) ~ 15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평화감리교회
강사: 김종길 목사(한목교회)
주최: 교경협의회

◆춘천 제3기 아버지학교 개강
일시: 6월 11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5시~10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함께교회	새순교회
서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열린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현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우리여행클럽	연투어
유림닭갈비	쏘엔테레아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협	김 영 명	민 병 임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협	안 미 애	안 정 숙
임 림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은 주	이 원 기	이 관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문
홍 순 복	리 브 가	

Y신협산악회

Y신협 산악회에서 회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산을 좋아 하시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단, 차량내, 산행전 음주가무는 사양합니다.

	년 · 월	일자	목적지
2005년 산행계획	2005. 06	21(화)	오대산
	" . 07	19(화)	용화산
	" . 08	23(화)	낙조대
	" . 09	13(화)	유명산
	" . 10	18(화)	설악산
	" . 11	22(화)	북한산
	" . 12	13(화)	대둔산
	2006. 01	17(화)	대관령
	" . 02	21(화)	명성산

연락처 사무실: 033)255-1007 산악회장 김유식 목사 (011-361-1995)



2005년 춘천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

일시 : 2005. 6. 12(주일)~15(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평화감리교회
● 주최 : 춘천경찰서교경협의회
● 강사 : 김종길 목사 (한목교회)